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등 제시

도교육청, 올해 주요 정책 과제 담은 전북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안내를 위한 2017년 전북교육계획 설명회를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갖는다.

오전에는 각급 학교장 및 기관장 대상 1차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후에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한다.

오전 설명회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이 직접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해 실질적인 설명회가 되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2017년 주요 정책 및 과제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참여 학력신장·학교자치 및 지역 사회와의 협치 강화·교육경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제시한다.

도교육청의 세부 정책과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인력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이다.

또 참여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역

신을 통한 공교육 표준 제시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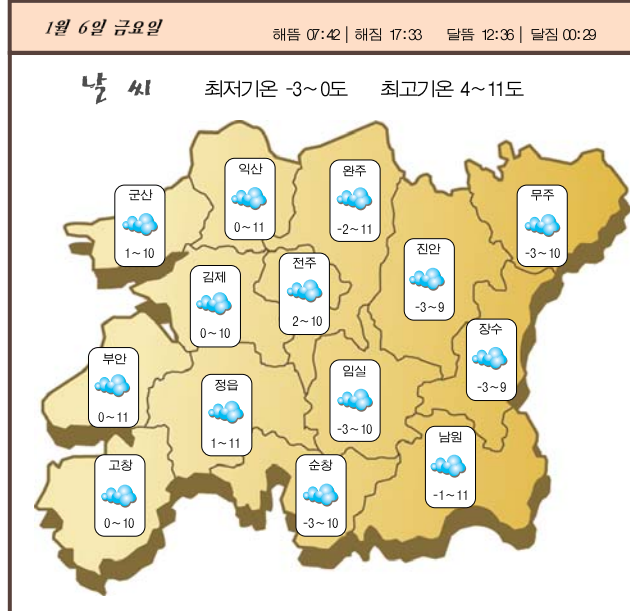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위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농어촌·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꾀한다.

교육경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 실현 교육의 공정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이날 교육계획 설명회에는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교육계획 담당교사, 특수학교장, 학력인정학교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담당관·과장 및 팀장급 이상, 교육전문직원 등이 참석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는 2월 말까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완료해 3월부터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전주시, 세계 최초 드론축구 선수단 창단한다

드론축구 세계화위해 국·내외에 홍보할 드론축구 선수 모집... 9일부터 20일까지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미래먹거리산업인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개발한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위해 드론축구 선수단을 창단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시 탄소산업 및 드론산업의 발전과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 경기 진수를 국·내외에 홍보할 실력 있는 드론축구 선수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축구는 탄소소재와 최근 급성장하면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른 드론산업을 융합해 만든 신개념스포츠로, 지난해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만 14세 이상 전주시민 또는 전주를 생활권으로 하는 드론 동호인이면 누구나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전주드론축구 실내 상설체험장에서 드론축구 선수단 선발전을 치를 예정이다. 20명 내외의 선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기준은 지정된 코스 미션 수행 시간 측정과 간단한 드론장비기술 등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선수단은 향후 전주시를 대표하는 드론축구선수단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선수단 전용공간(드론실내체험장 내)이 제공되는 등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도 지원될 예정이다.

드론축구는 최근 드론산업 기술이 급성장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주시와 협력기관인 (사)캡티브잡기술원



드론축구는 탄소소재와 최근 급성장하면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른 드론산업을 융합해 만든 신개념스포츠로, 지난해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로, 드론축구공을 탄소소재를 활용한 전용보호기구로 감싸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다 경기 중 서로 부딪히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6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 중 드론축구 수행기관

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7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년도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드론축구를 통한 드론산업 자변화에 본격 나서게 됐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축구를 더 개발하고 업그레이드시켜 전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포츠산업 시장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ICT기술을 적용한 탄소복합재와

첨단 레이저 LED 음향제어 등 드론축구 요소개발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드론축구 자변 확대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실내 상설체험장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 발표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가 5일 발표되고 10일에는 합격자의 학교 배정 공개추첨회가 진행된다.

5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입과 관련, 내신성적(70점)과 선발시험 성적(180점)을 합산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소속 중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페이지 '전라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 (<http://satp.j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의 최저 합격점수는 132.737점, 군산 137.535점, 익산은 140.122점이다. 불합격자 숫자는 전주시 2백6명, 군산시 32명, 익산시 27명이고 3

개 지역 평균 경쟁률은 1.025:1이다.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언론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일반고 합격자의 학교 배정 공개 추첨회를 열고 13일 오후 2시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시 모집 등록기간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을 선발함에 따라 학생들은 평소 내신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혜은 기자

전주 4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송천도서관과 이종도서관, 쪽구름도서관 완산도서관 등 전주지역 4개 시립도서관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한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송천·이종·쪽구름·완산 4개 도서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해당 도서관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새해 첫날과 설·추석 당일 등 연중 3일을 제외한 362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유열람실은 동절기 08:00~22:00, 하절기 07:00~23:00까지 개방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자료실은 오후 7시까지

만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4개 도서관은 일반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개방해 평일 일반자료실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전자정보コーナー 이용과 도서 대출 및 반납, 독서회원증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각 도서관 별로 다양한 야간 문화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립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